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편견을 버리기 위한 첫걸음, 인식개선에서부터

테마기획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앞으로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들 수 있는 방송을 꿈꾸는 광장제작단

포커스

우석대학교에서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가 열렸습니다!

목차	02	
점자로 말해요	03	● 오작교
시선집중	04	● 편견을 버리기 위한 첫걸음, 인식개선에서부터 홍서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연구원)
테마기획	06	●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앞으로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08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을 꿈꾸는 광장제작단
포커스	10	● 우석대학교에서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이야기	12	● 운동화, 이렇게 빨아보자 이성희(시각 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월드 리포트	13	● 미국을 울린 코디 리의 노래 ● 미국 뉴올리언스의 미술관에서 손으로 예술을 느껴요!
뉴스앨범	14	●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8의 막이 올랐습니다! ● 한시련, 2019년 전국시각장애인지도자대회 성황리에 마쳐 ●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눔 콘서트, 함께 즐겨요! ● 4가지 테마로 요리하는 안전요리교육 실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16	● 식사하기



7월에는 7월 7일, 칠석이 있는데요.
이 날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오작교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대괄호[]						
영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지, 초, 쓰, 다음에 약자 영 ㅍ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편견을 버리기 위한 첫걸음, 인식개선에서부터

홍서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연구원)

필자가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비장애인과 길을 건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요'라든가 '여기는 주유소 앞이지요?'라고 하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복잡한 시간에 어딜 가세요?" 등이 그것이다. 혈기만 왕성했을 때에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아니 시각장애인이 그걸 왜 몰라요?"라든가 어이가 없어서 대꾸조차 하지 않기도 했지만, 중년에 접어들어 지금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여유를 조금은 가졌다고나 해야 할까! "시각장애인으로 오래 살다 보면 감이 오기도 합니다."하면서 너스레를 떠다던가, "저도 여기 사람들처럼 먹고 살려고 나왔지요" 하면서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필자에게 어찌 보면 황당하고 기분 나쁠 법한 질문을 왜 하게 되었을까? 이는 모두 안 보이는 상황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각기 습득한 랜드마크에 의해 보행동선을 파악하기도 하고, 점자 및 음성지원기술을 통한 학습 및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떳떳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4차 산업시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삶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단편적으로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게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우리는 누구나 어떠한 식으로든 무수한 편견과 동거동락하고 있다. 삶을 사는 동안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에 갇혀서만 살 수는 없기에 편견을 깨뜨려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각인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해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의무화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시혜의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에서 사업주의 인식과 동료들의 태도, 그리고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 고용 기업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져왔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장애인의 모집과정, 노무관리, 작업환경 등 장애인에 우호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의 성실함이나 업무 필요성 때문에 채용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장애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회사채용 과정에 장애인 구직자가 찾아오는 것에 부담을 느낄수록, 장애인 고용으로 회사의 대고객 이미지가 저하된다고 생각할수록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다소 형식적이고 소홀히 진행되었던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직업을 갖고 싶어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좌절되어야만 했던 장애인의 취업 문턱이 낮아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강사로서의 역량평가를 통한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장애인고용에 부정적인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가치를 설득력 있게 어필하고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연계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 및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과 사업주가 더욱 유기적이고 고용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장애 근로자와 사업주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시 전문가 단체를 연계하는 등의 역할로써 안정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각 장애인의 특성과 생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 몸이 천 냥이면 구백 냥은 눈'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각의 장애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할 것이다. 그러기에 시각장애인의 취업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역할은 그 어느 장애영역보다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취업의 기회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안마업이 주업이었던 시각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고 맹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대기업이나 병원 등지에서 헬스키퍼로 근무하는 등 이전보다는 확대된 직업군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이 개발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사업주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시각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를 보일 때,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와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의 노력이 수반될 때 미약하나마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참여하는 사업주, 강사, 장애인 당사자, 정부가 상호 보완적이며 개방적인 자세로, 또한 다양한 직종의 개발과 고용의 안정화를 위한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삶과 동등한 사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황금돼지와 같은 복덩이가 되길 바라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이 2017년 4월 20일부터 발급됩니다.

손 끝으로 읽는 여권정보

점자여권에는 여권정보(성명, 여권번호 등)가 점자로 수록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여권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앞으로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여권의 사용 빈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거나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여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여권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여권 번호나 만료일자 등 여권 내의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여권도 개인정보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선뜻 타인에게 보여주기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해 2017년 4월부터 세계 최초로 중증 시각장애인(1~3급) 대상,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에서 점자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자여권 도입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 시 본인의 여권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요, 점자여권은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번호를 수록한 투명한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자여권 발급 대상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될 예정인데요, 하반기(7월)부터는 급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점자여권 확대 시행을 통해 그 동안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기존의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 정보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본인의 여권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점자 여권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 발급 후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여권을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을 꿈꾸는 광장제작단



남녀노소 누구나 음악과 함께 추억에 빠져드는 시간 라디오를 듣는 시간인데요.
이번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이 없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광장제작단의 **노동주**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광장제작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 A. 저는 현재 시각장애인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감독이 되기 전, 광주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영상 제작을 배우며 영화감독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광주시청자미디어재단은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방송 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교육해주는 곳인데요. 이 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라디오 방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광장제작단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Q. 광장제작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나요?

- A. 광장제작단은 총 7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장제작단 회장이자 PD인 어제원, 패널리인 노선호, 이사람, 전세빈, 진행을 맡고 있는 조민지, 노동주, 엔지니어인 이승철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씨는 지체장애인이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Q. 라디오의 콘텐츠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 라디오 콘텐츠의 주제는 광장제작단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제작 경험이 많으신 강사께서 매주 1회 교육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제는 주로 저희들이 터놓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선정하며 따로 주제 선정의 제한은 없습니다.

Q. 현재 광장제작단이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은 어디에서 청취할 수 있나요?

- A. 지금은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으며, 향후에는 CBS 같은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방송 날짜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청취자들과의 소통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Q. 광장제작단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A. 최근에는 문화생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감독이기도 하고 저희 제작단 멤버들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배리어프리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상영관이 한정되어 있어 찾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휠체어를 타는 중복지장애인의 경우에는 좌석 배정이 어렵기도 해 영화 관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외화가 배리어프리로 상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장애인들도 저희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아직 세상에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Q.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A. 사소하게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자주 배가 고파지는데요. 방송을 진행하다 혹여나 꼬르륵 소리가 들릴까봐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간식을 먹곤 합니다.
또 라디오 방송 제작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 방송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점자로 대본을 쓰다보면 읽는 속도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본 없이 애드립처럼 즉흥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짜임새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A. 가장 큰 부분은 시각장애인의 직업 영역인데요. 현재는 시각장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매우 좁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과학자, 변호사, 가수 등 다양한 꿈을 이루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꿈을 꾸든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 최종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방송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우석대학교에서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 10번째를 맞이한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가 우석대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열띤 테니스대회 현장의 열기를 소개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회장배 제10회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 대회가 지난 6월 28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 테니스는 1990년 일본의 한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처음 개발되어 2007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일본과 영국, 스페인, 한국, 중국 등 21개 국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일반 테니스 코트보다 길이가 약 5m 짧은 코트에서 구슬이 들어있는 직경 9cm 크기의 스펀지 공을 이용해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수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테니스 공과 라켓을 이용해 공 안의 소리로 위치를 파악하며 상대 코트로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테니스는 공이 바닥에 한 번 튀기는 것까지만 허용되지만 시각장애인 테니스는 최대 3번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석대학교, 전북맹아학교,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여수지회를 비롯해 중국 하북성과 일본 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소속 선수와 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 이 날 대회는 시각장애 등급에 따라 남, 여 단식 B1(전맹), B2(시력 0.03 미만), B3(시력 0.03 이상) 등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남자부 B1에 이와시타 마사유키(일본 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B2에 김성원(전북맹아학교), B3에 맹한영(전북맹아학교)이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부에서는 B1에 박주영(우리 대학교), B2에 김혜란(전북맹아학교), B3에 김희자(여수시각장애인연합회)가 1위에 올랐습니다. 단체상은 전북맹아학교에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정진자(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이 대회는 시각장애학교 및 기관에 테니스 장비를 보급·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여가선용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치러질 한·중·일 테니스대회를 통해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테니스의 즐거움에 매료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운동화, 이렇게 빨아보자



이성희(시각 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운동화가 좀 지저분하게 보였다. 사실 얼마 전부터 운동화를 세탁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자주 일었다. 머리를 자른 후 한 달가량이 지나면 꼭 머리가 지저분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늘 그 정도의 주기를 갖고 머리를 다듬었기에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서 머리를 잘라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내게는 운동화도 그렇다. 운동화 끈이 아주 더럽지 않더라도 이전에 빨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도 내 안에서 속제를 만들어낸다. 남도 모르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그만인데, 때론 그런 무시가 외부 사람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다.

오늘이 딱 그 날인 거 같다. 외출했다가 일부러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기어이 '운동화 빨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 미루면 내 속의 내가 더 힘들 거 같아서 작심을 했다.

참 번거로운 일이다. 이렇게 번거로운 건데 어째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내 속도 참 소가지가 못했다. 하긴 해야 하는 거지만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손쉽게 해치우고 싶다. 그래서 한번은 운동화 세탁 방법을 왕창 검색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내 나름의 운동화 세탁 결정판을 만들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고자 한다.

준비물: 세탁세제, 비닐봉지, 칫솔과 신발 솔, 고무장갑

1단계: 비닐봉지에 미지근한 물 조금 받고 세탁세제 거품 내기

먼저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내 피부는 남의 것이 아니니까. 비닐봉지는 물을 받아 운동화를 충분히 담글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물과 운동화를 넣고 적당한 힘으로 주물렀을 때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준비한다.

우선 비닐봉지에 운동화 한 켤레가 잠길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받는다. 때가 잘 빠지라고 뜨거운 물을 받으면 안 된다. 운동화 만들 때 사용한 접착제가 일어나서 운동화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후 세제를 넣는다. 세제는 가루세제든 액상세제든 상관없다. 흰 운동화를 세탁할 때는 집에 과탄산소다가 있으면 세제와 함께 넣어준다. 비율은 세제2, 과탄산소다 1 정도로, 그리고 잘 저어서 거품을 내준다.

2단계: 운동화 봉지 안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부은 후 봉지 묶기

운동화에서 신발창을 꺼낸다. 그런 후 신발창과 운동화를 비닐봉지 안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운동화가 폭 잠길 정도로 채운다. 물을 채우다 보면 운동화가 부력 때문에 조금씩 올라오는데, 폭 잠기게 한다고 너무 세게 운동화를 누르면 봉지 안의 비눗물이 분수처럼 솟구치니까 일부러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면 살살 넣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봉지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빼고 봉지를 묶어준다. 단 너무 세게 묶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풀어야 하니까. 봉지 속의 신발이 폭 잠기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후 봉지를 조심스럽게 조물조물 주물러준다. 한 30초 정도.

3단계: 5분 정도 두기

조물조물 주물러준 후 그대로 5분가량 둔다. 그러면 봉지 속의 물과 세제가 알아서 때를 빼줄 거니까.

4단계: 솔로 닦기

신발 솔과 칫솔로 신발 안과 밖을 닦아준다. 신발 솔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신발 솔의 재질은 다소 강한 편이라 운동화 외부의 연한 천 쪽에 대고 박박 문지르면 천이 다 상한다. 그러므로 신발 솔은 운동화 바닥과 밀창의 외면 등 단단한 부위를 문지르는 데에 사용한다. 연한 천 부위는 칫솔로 닦도록 한다.

5단계: 운동화 헹구기

운동화를 헹굴 때에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비누거품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6단계: 수건을 활용해서 탈수하기

이제 마지막 단계다. 말끔히 헹군 운동화를 마른 수건으로 감싸준다. 굳이 깨끗한 수건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사용한 후 말린 수건은 어차피 빨아야 하니 그런 수건을 활용하면 된다. 수건의 한 쪽 끝을 운동화 안 쪽 깊숙하게 넣어 주고, 나머지는 운동화를 곱게 감싸준다.

그런 후 세탁 망에다가 수건에 감싼 운동화와 신발창을 넣고 세탁기로 탈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수건 없이 탈수할 때에 비해 운동화에 수분기가 훨씬 적게 남아 건조 시간이 훨씬 짧을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위의 방법으로 운동화를 한 켤레 빨았다. 한동안은 운동화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좋다. 얼마간은 꽃길은 아니어도 깨끗한 곳만 골라 밟도록 해야겠다.



미국을 울린 코디 리의 노래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디 리(남, 22세)인데요. 코디 리는 지난 5월 29일, ‘아메리카 갓 탤런트’ 시즌 14에 출연해 심사위원과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감동한 많은 청중들은 눈물을 흘치기도 했는데요. 코디 리는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데다 자폐증도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관객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피아노 앞에 앉은 코디는 싱어송라이터 레온 러셀의 ‘A Song for You’를 불렀고,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만큼 능숙한 피아노와 매력적인 목소리로 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약 1분간의 공연이 끝나자 객석은 엄청난 환호와 박수갈채로 뒤덮였고, 심사위원 가브리엘 유니온은 시즌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골든 버저를 코디에게 선사해 코디가 예선을 건너뛰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결선 무대에 직행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의 미술관에서 손으로 예술을 느껴요!



미국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한 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사진이나 그림 등을 3차원으로 구현해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직접 작품을 만질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은 전쟁의 참혹함, 진한 동료애 등 작품 속의 다양한 내용을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전시를 관람한 미국의 시각장애인협회 회원은 3D 변환 기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한 데 묶는 기술이라며, 기술의 진보 덕분에 시각장애인도 세상의 일부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발전하는 기술로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8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SC제일은행과 협업을 통해 8년째 진행하고 있는 목소리 재능기부 캠페인 '착한도서관프로젝트 시즌8'이 6월 6일~6월 7일 종각역 SC제일은행 본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착한도서관프로젝트의 이번 시즌 주제는 '시각장애청년, 퓨처 메이커스(Future Makers)를 위한 창의적 기업가 가이드'였는데요.

이번에 제작되는 오디오북은 시각장애 청년들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 누구보다 우수한 자신만의 강점과 자질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사회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시즌8에서 최종 선발되는 100명의 기부자는 오는 7월 중 녹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제작되는 오디오북을 통해 많은 시각장애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시련, 2019년 전국시각장애인지도자대회 성황리에 마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전국의 지부장 및 지회장, 중앙회 임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2019년 전국시각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본 대회에서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의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안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김동현 변호사의 '장애인 인권과 차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김영미 사무관의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생활이동지원센터 명칭 개정, 장애인 쉼터, 65세 이상 활동보조 신규 이용 등 시각장애인 복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는데요. 전국의 시각장애인 지도자들이 직접 당사자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권익 증진 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눔 콘서트, 함께 즐겨요!

6월 29일(토) 15시에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나눔콘서트’가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임종혁)과 노원구, 노원구의회, KB국민은행의 후원, 노원문화원 및 노원문화재단의 주최,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시각장애인 약 200명, 비시각장애인 약 200명이 관람하였는데요. 나윤규 대표의 예술 감독을 필두로 색소폰 심삼종의 공연과, 소프라노 박문주, 이덕인, 이진희, 테너 강성구의 화려한 앙상블이 돋보였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대금연주자 문종석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플루트 연주단 엄다솜, 이원우, 서미연, 한지원이 특별출연하여 콘서트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가곡 ‘그리운 금강산’부터 ‘Oh, happy day’, ‘내 나이가 어때서’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공연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공연 후 경품 추첨을 통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4가지 테마로 요리하는 안전요리교육 실시!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임종혁)은 지역 내 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안전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정책특새네트워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은 '당뇨, 고혈압 이기는 밥상', '세계요리여행', '일품요리', '연말파티요리' 4가지 테마로 올 11월 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세계요리여행'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서로 맛보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프라이팬에 음식을 익힐 때, 익힌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태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요리가 재밌어졌어요"라고 한층 밝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사하기

모든 식사 시 기본적으로 밥, 국, 개인용 접시위치를 알려주고, 중앙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안내합니다. 말로만 해도 되고 젓가락을 들게 하여 손을 잡고 접시가 놓인 곳을 짚도록 하면서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에 버섯전골, 한 시에 도라지무침, 두 시는 총각김치, 세 시에 백김치, 네 시에 샐러드구요. 마늘과 된장그릇은 국그릇 앞에 나란히 있어요"라고 말이죠.

식당에서 주문할 때는 보통 한 식당의 메뉴판을 이름과 가격을 모두 알려주고,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찬이 종류가 많더라도 한상에 차려진 음식이 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내 밥상에 놓인 음식이 뭔지 짚은 알고 먹어야지요.

참고로, 한 그릇 음식이 아닌 몇 가지의 반찬이 나오는 곳이면 개인용접시를 하나 달라고 청해서 따로 조금씩 덜어 드리는 것을 편해하기도 합니다. 개인 취향이니 만큼 미리 물어보세요. 이때 음식의 양념이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찬의 양념이 서로 섞이면 고유의 음식 맛도 잃게 되니까요. 물론 보기에도 매우 좋지 않아요. 성의도 없어 보이고요.

I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대표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한은행 140-001-911645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247-890007-44704



손으로보는세상 2019년 7월 228호

발행일 2019년 7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